

2026. 6. 28

제117권 26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최성수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40장	다	함	께
성 시 묵 상	 128.사순절(5)	다	함	께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373장	다	함	께
기 도		전윤희집사		
찬 송 묵 상	 (온 맘 다해, 손아리성도)	다	함	께
봉 헌 송 *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	께
봉 헌 기 도		담 임 목 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담 임 목 사		
찬 양	 전능하신 창조주	살롬찬양대		
찬 송	 637장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요나1:11~16(구약P.1287)	담 임 목 사		
말 씀 선 포	 【폭풍 만난 배 안의 사람들】	담 임 목 사		
말 씀 묵 상		다	함	께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	함	께
축 도	 송영	담 임 목 사		

오늘의 말씀 / 김승학 목사

요나 1:11~16 / 폭풍 만난 배 안의 사람들

성령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
북한선교주일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윤정호목사

찬 송	 40, 373, 432, 55장	 다 함 께
교 독	 128.사순절(5)	 다 함 께
기 도	 이완섭장로	
찬 양	 은혜의 식탁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조경화목사

찬 송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373, 432, 은혜 아니면 ..	다 함 께
기 도		신동현장로
찬 양	 물 위를 걷는 자	글로벌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다 함 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인도:담임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 회 기 도	인 도 자

†내주기도 : I 부 - 임현오 집사 / II 부 - 장병익 장로 / III 부 - 전희봉 장로
IV 부 - 권용일 장로 / 청년예배 - 손기현 청년 / 찬양 - 심재창 장로 / 수요 - 허미자 권사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최봉남 서정자 김종학 김인숙 권태섭 권영광 김수진 박상준 임현오 권영기

* 7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I	박경봉	권태섭	문순금	최영숙	이재택	최미자	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위동 조대용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
II	김신호	조지용	한경원	고예란	조희열	한순녀	
III	안영진	조영욱	박영신	김인숙	임현오	서금숙	
IV	김광수	임병태	신승주	김선희	조재복	이금란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경배와 찬양 - 하느래워십 / 기도 - 나지수청년

설교 - 마태복음6:31~33(신약P.9) / 일상이라는 이름의 선교지 / 최성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보훈가족 초청예배) 인도:권훈목사

경배와 찬양 - 새롭찬양단 / 찬송 - 582, 54 / 기도 - 전희봉장로 / 찬양 - 시온찬양대

설교 - 열왕기상18:1~4(구약P.545) / 엘리야와 오바다 / 김정수목사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민희정집사

설교 - 출애굽기13:17~19(구약P.101) / 88.바다의 길-국제 무역로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 오후 7시30분

경배와 찬양 - 르비딴찬양단 / 기도 - 손향숙권사 / 은혜나눔 - 정지빈청년 / 찬양 - 다비다찬양대

설교 - 사무엘상1:9~18(구약P.407) / 한나,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다 / 정영오목사

묵 상 노 트

“폭풍 만난 배 안의 사람들” (요나 1:11~16)

- 바다에 _____ 사람들 (11, 13~16)
묵상을 위한 질문) 배안의 사람들은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잠잠해질 수 있는 방법
을 요나에게 물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를 던지지 않고
노를 힘써 저었지만 풍량이 더 거세지자 배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
의 목숨을 위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으며, 요나
가 바다에 던져진 후 풍량이 즉시 그쳤다. 이처럼 내 유익을 위해
피치 못하게 누군가를 희생시킨 경우는 없는가?
- 바다에 _____ 사람 (12)
묵상을 위한 질문) 요나는 폭풍의 재앙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배안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바람이 점점 흉흉해
지자 그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
유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한 적이 있는가?